

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계단·올바른 걷기 안내표지판 조성

정읍시보건소는 생활 속 건강 실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성동 뉴캐슬아파트와 북면 성원차 아파트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건강계단은 아파트 계단과 벽면에 운동 시 소모칼로리와 음원문구 등을 부착해 주민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두웠던 계단을 화사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활기찬 아파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지난 10월 17일, 24일에는 해당 아파트를 각각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계단 조성 홍보를 실시하고 올바른 걷기 방법과 계단오르기의 이점·효과를 알리며 엘리베이터 대신 건강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농기센터, 복분자 저탄소생물농법 간담회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0일 복분자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개발대학 복분자학과 학생회, 고창 복분자연구회 전남대학교 친환경연구소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복분자 고사원인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들음병 해결을 위한 복분자 뿌리살리기 교육(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화학교수 김길용)을 실시했다. 2부에서는 변화하는 기후환경, 연작장애, 토양관리, 병해충관리 등 다양한 재배법 등에 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복분자 재배 중요시기에 맞춰 토양관리, 재배관리, 병해충방제 등 지속적인 현장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 복분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해 복분자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부안군, 산불 발생 제로화 위한 총력 대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등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47일간) 부안군청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읍·면과의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재난 대비에 총

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 순찰,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림인접지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 등 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투입해 초동진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15일 전라북도산림박물관에서 실시될 2023년 산불지상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실전과 같이 연습하고 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가을철 산불은 대부분 농업잔재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모든 군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봄철에 이어 가을철도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봄철 산불방지 제로화를 달성 2023년 소각잔재물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우수마을 4개 선정, 2023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경아부 장려상 및 2023년 산림재난 유공자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준공식

지난 31일 본격 운영 돌입

정읍시는 지난 31일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기존 봉안당(7366기)과 자연장지(5757기)가 빠르게 완장됨을 예상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고경운 시의회 의장, 부안·고창·김제의 부지사, 화장시설 주변마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장 인사말, 내빈 축사와 테이프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제2봉안시설은 총사업비 130억을 투입해 제2추모묘(1만2000여기), 제2자연장지와 봉안당(1만여기), 공원형 장지, 208편의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시는 일반적 묘역 이미지를 넘어 시민, 유족과 추모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



을 추진했다. 이학수 시장은 "기존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만장이 빠르게 다가와 조기에 시설을 완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연 친화적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전

북지역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2015년 개원 후 1일 평균 14건의 화장과 이달 기준 4만 4천여 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2015년 설치한 화장로 5기 교체공사를 추진중이며, 이로써 장사문화의 선진 지자체로 나아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노동골 꽃정원단지, 가을철 관광객 인기몰이

고창군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에 들어선 꽃정원 단지에 가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3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해 불거리 제공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골 꽃정원이 산책명소로 뜨고 있다. 현재 가을꽃의 대명사인 코스모스와

맨드라미, 버들마편초 등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을 받고 있다. 주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루며, 어린 자녀 또는 부모님과 함께 만개한 코스모스와 마편초를 보며 사진을 찍고 귀여미 토끼 조형물 앞에서 셔터를 분주하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고창읍성과 노동저수지를 연계한 차별화된 고창군의 꽃정원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울산시 중구, 자매결연 협약

문화·행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 소통·교류 상호 성장 도모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1일 중구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영길 중구청장, 양 기관 사 회단체장 및 간부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안군과 울산 중구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도시로서 김영길 중구청장이 회장을, 권익현 군수가 공동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국원전동맹 소속 도시로서 원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원전 안전 강화, 문화·관광·행정·교육·경제·복지·체육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 추진, 우수 시책 사업 공유 및 상호 친선 방문 등 행정

정보 교환,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주의를 입각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등 중구 관내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가집 중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 중구와 전북 부안은 원전인근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며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읍시는 지난 30일 2023년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의 숨겨진 매력을 알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맛집 등을 담은 창작영상물을 발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접수된 작품 총 58편에 대해 사전·본 심사를 거쳐 최은지 씨의 정읍 여행 준비 중이리만 우리처럼 여행해 보세요~"를 대상으로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4편에

대해 시상했다.

대상을 받은 최은지 씨의 작품은 외국인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2주 동안 정읍에 머물며 내장산 생고을시장, 용산호, 상화차거리, 천사하이로드 등을 방문해 정읍으로 여행 온 설렘과 즐거움을 표현해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다.

이학수 시장은 "수상자들을 홍보에 활용해 정읍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상자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상설시장, 내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부안군은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군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부안상설시장 내 5미터 간격으로 총78개소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한다. 증발냉방장치는 물분자의 기화작용을 이용해 미세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시스템이다. 이로써 부안상설시장은 적정 온도유지를 통한 신선한 수산물 제공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휴서기 폭염시 시장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증발냉방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상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상설시장, 부풍로, 석정로 및 번영로 일원을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실상권 주변 환경개선, 통합마켓 스마트 상권 구축, 삼정가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